

베트남의 정치·경제·사회 정세에 대한 특별 강연 요지

일본 섬유 기계 학회(日本 纖維 機械 學會)가 2008년 12월에 개최한 ‘베트남 조사 사업 보고(Viet Nam 調査 事業 報告)’에서 아시아 경제 연구소의 전임 조사역(傳任 調査役)이 특별 강연한 ‘베트남 정치·경제·사회 정세의 개요’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 값싼 노동력만을 목적으로 하면 안 돼

우선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베트남의 매력은 싼 임금이나 차이나 + 원 (China plus One) 뿐이 아니고 더 다각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에 베트남 경제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지만,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베트남 경제 위상을 살펴보면, 2006년 국민 1인당 GDP(Gross Domestic Product : 國內總生産)가 726 달러이다. 참고로 2005년의 인도네시아가 1,184 달러이고, 중국이 1,490 달러, 태국이 2,539 달러이다. 이것이 베트남 경제의 현상이고, 앞으로 8% 성장하고 인구 증가율이 1.3%라고 하면, 2020년에는 1,800 달러가 된다. 아직도 이런 포지션(position : 地位)이다.

그래도 2000년부터는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 2007년에는 3년 연속 성장률이 8% 이상이다. 이는 외화 유입과 무역을 지렛대로 한 향상이었다. 2000년에 미국과 통상 협정 체결(通商 協定 締結)로 수출입이 급증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다만 부품을 수입하여 제품을 수출하는 가공 무역이 중심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도 커지고 있다. 주요 수출 상대국은 미국이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은 제 2의 투자 붐(投資 boom)이 일고 있는데, 2005년에 WTO에 가입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8년은 철강이나 정유소 등 대형 투자가 잇따랐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1 ~ 2년은 외자의 투자 내용에 변화도 생겼다. 서비스 부문과 부동산 부문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베트남 경제의 특수성이다. 현재도 ‘베트남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proletaria 獨裁)를 위한 전위(前衛)’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시장 경제화는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국가를 빨리 건설하기 위한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보다도 국가가 우선이며 규제도 자주 변하고 있다. 또한 국영 기업(國營 企業)의 존재가 크다. 많은 국영 기업은 주식회사화(柱式會社化)하고 있는데, 민영화는 안 되고 있다. 중요한 기업은 국가가 주식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대기업의 40%가 된다. 그러면서 경영은 다각화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영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다음으로 베트남 경제의 단기적 근심거리를 보면,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주가가 급등(急騰)하고 폭락(暴落)하였다. 주식 지표(柱式 指標)인 VN 인덱스(index)는 2006년 1월에 305였던 것이 2007년 1월에는 1,170이 되고, 2008년 3월에는 500, 2008년 12월 9일 단계에서는 293이었다. 그러나 이는 세계 금융 위기와 직접적인 관련은 적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베트남에서는 외화 유입 때문에 중앙은행이 달러를 사는데, 아주 싼 값으로 유도(誘導)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주 싼 달러가 너무 많이 시장에 돌아다녀, 인플레이(inflation)가 되었다. 그러자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금융을 조이기 시작하였다. 금리가 2008년 8월에는 21%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영이 압박을 받게 되었다. 베트남에는 기업이 약 13만개 회사가 있는데 이 중에 50%는 종업원이 10명도 안 되는 중소기업이다. 50명 이하일 경우가 80%에 이른다. 또 일

본의 개인 상점과 같은 ‘생산 기초(生産 基礎)’는 300만개사가 있는데, 모두 종업원이 10명 이하이다.

여기에 인건비가 크게 오르고 인재가 부족한 현상이 겹친다. 또한 기술계 인재는 크게 부족하다. 직장에서의 파업(strike)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이 단기적 근심거리라고 볼 수 있다.

중장기적 근심거리로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의 50% 이상이 종업원 1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며, 대기업의 90%는 국유 기업이라는 균형이 크게 안 맞는 기업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이 원료 부품의 현지 조달 비율이 낮아지는 원인의 하나이다. 일본계 기업의 베트남 국내 조달 비율은 불과 23.6%이며, 이는 필리핀 다음으로 낮다.

다음에는 에너지 문제가 있다. 베트남은 원유 산출국(原油 產出國)인데, 정유소(精油所)가 없다. 2009년에 드디어 최초의 정유소가 완성될 예정이다. 이로 인하여 전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여 2004년부터는 중국으로부터 매전(買電)하고 있다. 2020년에는 200억 ~ 240억 kW(kilowatt)의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석탄·철광석을 산출하고 있는데 고로가 없다. 그래서 조강(粗鋼)을 수입하여 전기로(電氣爐)로 철강을 생산하는 등 원료와 제조업이 언밸런스 상태에 있다.

10 ~ 20년 후의 소비·노동 시장에도 함정이 있다. 베트남은 25세 이하가 인구의 4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미 10세 이하의 인구가 줄기 시작하였다. 즉 고령화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30년 동안에 경제 성장을 달성하여 사회 보장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젊은 층의 남녀 비율도 불균형으로 여성이 적어서 저임금의 여공은 줄게 될 것이다.

WTO 가입 후(加入 後)의 문제도 있다. 미국은 섬유·봉제품 수입 쿼터(quota : 割當, 分擔分, 規定數量)을 폐지하였는데, 그 결과로서 2007년은 대미 수출이 급증하였다. 그래서 반덤핑(anti dumping) 모니터링(monitering)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고도 미국의 비시장 경제국 반덤핑 조치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도 주의하여야 한다. 자칫하면 보호주의가 심해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외자 우대(外資 優待)도 점차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부문(sector : 部門)의 개방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일 것이다. 예컨대 상사가 일본에서 사들인 상품을 베트남 국내에서 소매할 수 없다. 그래서 유통의 근대화도 늦어지고 있다.

정치의 안정 정도를 살펴보면 베트남 공산당 내의 정치는 안정되어 있으며, 응웬 쯔쑤엔 총리에게 리더십도 있다. 그러나 당과 국민의 관계는, 예컨대 오직(汚職)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공산당은 현재 국민과의 대화를 중시하고, ‘국민 정당(國民 政黨)’으로 탈피(脫皮)하려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장래의 사회주의 국가상이 잘 보이지 않게 되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일본 기업은 베트남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겠는가, 먼저 2008년의 경제 감축은 장기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저급 상품(低級 商品) 중심이므로 바로 더 나빠질 것은 없다. 그러나 미국의 통상 정책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시아와의 무역도 많다. 아시아는 여전히 성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적 과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포인트는 값싼 노동력 이외의 매력을 찾아낼 수 있느냐이다. 예를 들면, 베트남은 중국보다도 다능공화(多能工化)를 잘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베트

남의 질이 좋은 노동력에 대하여 중국 이상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담당 분야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인데, 예컨대, 물건 한 개 생산은 잘한다. 이런 것들은 이탈리아와 비슷한지도 모른다. 매스 프로(mass production : 大量生産)가 아닌 생산이 지금의 베트남에서는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로컬 파트너(local partner)를 얼마나 키울 수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WTO 가입의 활용도 중요하다. 다만 ‘차이나 + 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본뿐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만, 한국, 홍콩 등의 기업도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다. 일본 기업으로서는 어디와 손을 잡느냐는 판단이 중요하다. 대만 기업 등은, 국적을 전혀 문제로 삼지 않는다. 일본 기업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베트남에서의 찬스(chance)가 넓어질 것이다.♣